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제공

위성곤 지사-국회의원 월 1회 만난다

어제 당정협의회… 내년 국비 확보 방안 등 논의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정례 협력 체계 구축기로

민선 8기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불통논란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입법·현안 해결을 위해 월 1회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내 주요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김대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영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성곤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정과 국회 간 상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례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비 확보 방안과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앞선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의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시 회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제주도정 주요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제주권 AX 대전환'을 비롯한 2027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에 대해 논의했

다. 위성곤 지사는 “당정협의회 정례화를 바탕으로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입법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농어촌 기후 피해 대응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소통하고 예결위원으로서 고수온·가뭄 대응 예산은 물론, 제주 핵심 현안이 정부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개수를 놓고 제주자치도와 지역 국회의원간 불통이 이어지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많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그린리모델링 확대… 단열·창호 공사비 5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대당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의 창호 교체와 단열 보강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창호를 바꾸고 단열을 보강해 에너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올해 노후주택 17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 대상을 넓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한 지 15년이

넘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먼저 지원하고 경쟁이 없으면 일반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이 1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기초연금수급자가 2순위, 일반 가구가 3순위다. 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하며 고기밀 단열 보강과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가지체 설치 등에 쓸 수 있다.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가운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한 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도 건축경관과(건설회관 3층)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영훈 제주도 건축경관과장은 “노후주택의 단열을 개선하면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고 온실가스 배출도 함께 감축된다”며 “민간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0월부터 검사 직접 수사 금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고소·고발은 경찰에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을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로 ‘수사하는 검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 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사건 처리 기한은 ‘3개월’로 정해졌다.

개정 형소법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수리일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

했다. 사건을 송치받거나 송부받은 검사 역시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사건 처리 기한을 총 6개월로 정한 것이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확보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도 새로 생겼다. 경찰이 실제로 확보한 자료와 검사에게 넘긴 기록 사이에 누락이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해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을 허용된 목적과 달리 외부에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컨퍼런스 제주 유치 추진

위 지사 유네스코 측에 제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컨퍼런스’의 제주 개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안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지난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라자르 엘론두 아소모(Lazare Eloundou Assomo)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과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240개 지역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국가와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다.

위 지사는 “전 세계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여 자연유산의 가치를 직

접 체험하면 보존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과 공감에 이뤄질 것”이라며 제주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제주도가 긴밀히 협력해 컨퍼런스 유치를 성사시켜 자연 보존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소모 센터장은 “매우 강력하고 뜻깊은 제안”이라면서 “유네스코 본부로 돌아가 제주에서의 컨퍼런스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아소모 센터장은 지난 1일부터 제주를 찾아 이틀간 머물며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보존 모델을 체험했다.

이상민기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한라산 아카데미’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의 생태와 지질, 문화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한라산 아카데미’ 하반기 과정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한라산 아카데미는 한라산의 생태와 지질, 문화 등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영실·어리목 탐방로 일대에서 운영된다.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오는 7월 오전 10시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오소범기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서비스터미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실내 토탈 인테리어/욕실/거실/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불박이장/침대/소파/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